

민주시민·인성·평화공존 교육 강화

전북교육청, 외부 강사단 운영... 총 95명으로 구성
강사단 연수서 운영 계획·효과적 교육 방법 등 소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민주시민·인성교육, 평화공존교육을 지원할 외부 강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강사단은 민주시민·인성교육 분야 82명, 평화공존교육 분야 13명 등 총 95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민주주의·인권·평화·생태·문화감수성 등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지난 14일 전주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 민주시민·인성·평화공존교육

강사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연수에서는 향후 강사단 운영 계획, 효과적인 교육 방법 등을 소개했다.

이리초등학교 김수현 교사는 초등교육과정과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별 특징에 따른 참여와 집중을 끌어내는 교수학습 방법을 안내했다.

또 서전중학교 김지원 수석교사는 중등교육과정과 중·고교 학교문화 변화에 따른 학생 특징과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소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과정 중심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통해 지역 연계 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전주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 민주시민·인성·평화공존교육 강사단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민성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생들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4일 2층 강당에서 2025년 3월 1일자 유·초·중·등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수석교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전북교육 희망 대전환 주역”

전북교육청, 교원·교육전문직원 임명장 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4일 2층 강당에서 3월 1일자 유·초·중·등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수석교사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명장 수여 대상은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부서장 및 기관장 4명을 비롯해 유·초·중·등교(원)장 60명, 교(원)감 53명, 교육전문직원 146명, 수석교사 3명 등 총 266명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에 주역이 될 분들”이라면서 “전북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세계가 원하는 인재가 될 것” | 전북대, 2025학년도 입학식·오리엔테이션

학사·석사·박사 등
신입생 4989명 입학 허가
대학생활·정보 등 제공



지난 14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전북대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지난 14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전행사로 취타대가 캠퍼스 곳곳을 돌며 신입생들을 환영하고, 양오봉 총장과 본부 보직교수들의 학사행렬이 이어져 입학식 분위기를 북돋웠다.

본 행사에서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자들과 신입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총장이 입학 대상자 학사과정 4,026명, 석사과정 789명, 박사과정 174명 등 총 4,989명에 대한 입학허가를 선언했다.

2부 행사로는 신입생들에게 대학생활 전반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동아리 공연으로 시작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수강신청이나 교양교육과정, 전공배정 안내, 장학금 제도, 학군단 등 대학생활에 대한 안내와 학생 자치회 등 신입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단과대학 및 학과 별로 캠퍼

스투어와 함께 쿼터타임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됐다.

양오봉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북대학교는 첨단 분야 인재양성 사업을 잇달아 유지하고, 최첨단 스타터 디카페와 인터내셔널 라운지, 중도

라운지 등을 조성하면서 학생중심 대학임을 인정받고 있다”며 “AI 친구가 학생 진로와 취업을 도와주는 첨단 시스템 구축과 2차전지와 K-방산, 바이오와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첨단산업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한 융·복합 전

공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대는 이미 전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학으로 성장했다”며 “철저하게 준비해서 미래를 열어간다면 여러분은 세계가 원하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예술꿈나무 새싹인재 모집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이현웅)이 2025년 예술꿈나무 새싹인재 120명을 모집한다.

‘예술꿈나무 새싹인재 육성사업’은 도내 예술분야에 재능과 관심이 있는 학생(초3~중3)을 대상으로 예술전문학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질의 예술분야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2월 4일, 진흥원과 교육 주관기관(남원국악예술고, 전주예술중)이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도 학생모집에 나섰다.

예술분야에 관심있는 학생은 남원국악예술고와 전주예술중으로 해당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되며, 교육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현웅 원장은 “예술 꿈나무 새싹인재 학생 모집은 예술분야에 잠재력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분야 교육과 진로 기회를 제공하고 전북 지역의 예술인재를 발굴하여 장차 도내 예술계에 기여할수 있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학부모 대상 AI·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이해 연수

전주교육지원청, 1차 교육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기)은 지난 14일 3층 대회의실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AI 및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이해 연수’ 1차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디지털 시대의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에듀테크 기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전주초포초등학교 허정수 교사가 강사로 나서 AI 코스웨어, 디지털 교과서 및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에 대한 실제적인 시연과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한 한 학부모는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참여중심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과 가정에서도 디지털교과서로 자녀의 학습습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막연하게 불안했던 디지털 교육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에듀테크 기반의 미래



지난 14일 전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AI 및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이해 연수’ 1차 교육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생1인 1스마트기기 보급과 스마트칠판,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 및 교사연수를 마쳤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스마트기기가 수업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또 부작용을 줄여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3층 대회의실에서 2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학교연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4일 전주 비전대학교 행복기술사에서 2025 학교연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일반계고 등 98개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는

학교별 공동교육과정 업무담당자에게 2025학년도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공동교육과정 플랫폼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연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의 개념 및 근거 △공동교육과정 운영 성과 △공동교육과

정 플랫폼을 활용한 과목 개설 △신청 학생 관리 △공동교육과정 준비 및 운영 등이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2025학년도 학교연계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보장 확대 및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교무업무 지원교사 내달 배치

전북교육청, 초등학교 50곳에... 학교 필요업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월 새학기부터 교무업무 지원교사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교무업무 지원교사란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추가로 배치되는 교사를 말한다.

이들은 학교에서 주당 10~12시간의 수업과 빈도·강도·난도가 높은 교무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빈도·강도·난도가 높은 업무는 학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는 학교에 교사를 1명 더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이들의 지원 업무는 해당학교가 지장한다.

이는 학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무업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된 결과 총 50개의 초등학교에 교무업무 지원교사를 배치하게 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사업무 경감을 통한 선생님들이 학생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8일까지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점검

전북교육청, 통학 안전관리·학교 시설물 관리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오는 28일까지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통학 안전관리 △미세먼지 대응/공기정화장치 관리 △학교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학교 내·외 공사장 안전관리 △기숙사 화재 예방 및 대응 관리 △산악안전관리(시설, 경비, 청소, 급식실, 통학보조) 등이다.

학사일정을 고려해 교육지원청(학교)별로 추진하되, 개학 전까지 모든 학교가 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조치 사항은 학교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전문성 등이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과의 합동점검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개학 이전에 조치가 어려운 장기 조치 대상 학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미비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신학기 안전 점검을 통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5학년도 교육과정 세움 주간 연수

정읍교육지원청, 26일까지 초·중등 교사 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감 서거석)의 ‘전북교육, 한국의 중심으로! -학력신장·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에서는 13~26일 초·중등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교육과정 세움 주간 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2025학년도에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2학년으로 확대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안착 및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운영한다.

이 연수 기간 동안 단위학교 교육과정 수립 지원(13일, 초·중 연구 업무담당), AI 디지털교과서 소개 및 이해(19일, 학부모), 입학초기활동 및 한글책임교육 지도(24일, 초등 1·2학년 담임교사), 사회와 지역화교재 지도 및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25일, 초등 3·4학년 담임교사), 진단-보정시스템 활용 방법(26일, 초·중 학력 업무담당)에 대한 연수를 운영하여 새학기 맛이 교원 수업전문성 신장 및 새로 도입되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용훈 교육장은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및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정읍 지역 학생들이 미래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은=김대환 기자